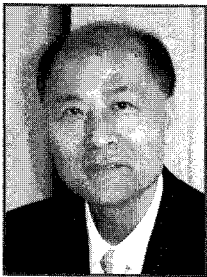


환경을 넘어 지속가능사회로 : 기업의 역할 확대와 동반의 시대를 위하여



박 준 우

상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환경보전협회 이사

- 1967. 2 대구 계성고등학교 졸업
- 1972. 2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물리학과 이학사
- 1974. 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 1981. 5.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경제학석사
- 1990. 5.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경제학박사
(학위논문 : The Cyclical Performance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 1974. 3 - 74. 8 총무처 수습사무관(14회 행정고시 합격자)
- 1974. 9 - 76. 2 국방부 방위산업국 행정 사무관
- 1976. 3 - 84. 2 경제기획원 행정사무관
- 1984. 3 - 현재
상명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학보사 주간, 교무처장, 정책실장, 대외협력처장(현)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전문위원, 환경친화기업 심사위원,
ECO2 포럼 자문위원, 환경부 개방직 인사위원,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환경산업분과위원
서울시 녹색위원(지속가능분과위)
폐기물정책 포럼위원장, EPR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한국환경자원공사 경영자문위원,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위원,
기획예산처 산하기관 평가위원 등

1. 들어가며 : 환경은 아직도 사치품인가?

며칠 전 블라디보스톡을 다녀왔다. 학회가 끝나고 마지막 날 시내를 둘러 볼 기회가 있었다. 육지 깊숙이 들어 온 만을 중심으로 발달한 천혜의 항구, 언덕 위에서 내려 다 본 도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그것이 곧 사라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바다로 돌출한 아름다운 반도에서 건설공사가 한창이었던 것이다. 경관을 고려하지 않는 고층건물이 곳곳이 늘어서 있고 대형 건물들이 한창 공사 중이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개발 붐을 러시아인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20년 전에 우리도 개발 현장을 보면 얼마나 좋아했던가? 현지 경제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과오를 이야기 해 주었지만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같은 서글픔을 중국에서도 느꼈다. 3년전에 귀양을 방문하고 작년에 또 한 차례 방문하면서 너무나 커다란 변화에 망연자실한 적이 있다. 마치 달걀을 반으로 잘라 평지에 세워 놓은 듯한 이곳의 특이한 산 모양이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워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3년뒤 다시 찾은 귀양에는 이러한 산들이 대부분 잘려서 흉측한 모습을 들어내고 있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고이 간직하여야 할 것이라고 그곳 학자들에 이야기 하였지만 그들은 내 말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이었다. 귀양에는 이런 산들이 수천개나 되기 때문에 아무리 깎아도 걱정 없다는 것이다.

지금 중국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 풍요이지 환경은 흔해빠진, 개발하여 이용할 대상에 불과한 것이다.

몽골도 마찬가지였다. 3년전 방문 했을 때 울란바트르 시는 비교적 조용하고 차분한 마을이었다. 5분만 나가니 대초원이 펼쳐져 있는,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몇백년 전 세계로 여행하는 느낌이었다. 그런데 거기서 온 사람을 만났더니 엄청나게 변하였다는 것이다. 울란바트르시가 이제는 자동차가 초만원이고 대기고 엄청나게 오염된 서구의 여느 도시와 다름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말이 자동차로 바뀌면서 울란바트르 사람들의 풍속도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일년에 한번은 한달씩 여름 집에 가서 쉬던 풍속은 사라지고 이제는 하루나 이틀만 머물다 돌아온다고 한다. 이제 몽골 사람들도 유목민의 전통을 버리고 우리 서울 사람처럼 도시인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변해버린 사람들, 사라진 마을, 자연은 어디로 갔나. 참으로 서글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몽골의 어느 시인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자연이 모습을 감춘다고 하였단다. 그런데 몽골의 온천 지역에 한국 사람들의 진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러하였듯이 개발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부추기면서 이제는 우리가 개발만능의 이념을 이들에게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만능 주의가 우리 사회에서는 다 사라진 것일까? 오히려 더 살아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환경문제는 뒷전으로 밀려 나더니 겨우 살아나는 듯 하다가 경기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다시 뒷전으로 밀려 나고 있다. 청년실업과 헤어날 줄 모르는 경기불황, 부동산 폭등, 균형개발의 이념과 이슈가 온 사회를 휘저으면서 환경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찌감치 사라지고 말았다. 개발욕구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환경, 아직도 배고프고 물질적 풍요가 최고인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환경은 사치품일 뿐인가 보다. 비 오는 날의 우산처럼 비가 오면 우산 찾느라 허둥대다가도 잠시라도 비만 그치면 귀찮고 성가신

것이 되어 버리는...

2. 환경, 필요한 것이지만 대가를 요구하는 경제

지금 우리사회에서 환경보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파괴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환경은 역시 우리 사회에서 성가신 것이다. 환경의 보전은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환경보전이 노력이나 희생이 없이 그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에게는 환경보전을 위한 지출과 노력이 추가적인 원가 압박으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정부로서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경제발전전략을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되었다. 소비자에게는 원치 않는 물가상승의 부담으로, 그리고 일반국민에게는 자유로운 생활의 억제와 귀찮은 규제 로 환경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제 겨우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경제발전엔 필요한 자원도 부족한 판에 당장 시급하지 않는 환경보전에 부족한 자원을 할애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성가신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환경보전은 시민단체나 일부의 환경운동가들이 혼자서 떠드는 감상 내지 사치에 더 이상 아닌 것이다. 어찌면 우리는 아직도 대가를 치르고 구할 만큼 절박하지 않은 것인가?

그러나 잠시만 우리 주위를 둘러 보자. 과연 안심하고 이런 상태로 살 만큼 우리 환경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요 몇 년 사이에 우리의 환경은 어떻게 되었는가? 웰빙과 친환경아파트와 친환경 도시를 외치는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우리의 환경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네 삶의 방식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발전 정책을 점검하여 볼 때이다.

3. 환경보전과 개발은 갈등관계인가 보완관계인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경과 함께 물질이 필

요하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더 나은 환경이 필요하듯이 더욱 다양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런데 더 많은,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경제활동을 늘리면 환경오염도 늘어난다. 우리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제활동은 필연적으로 물질자원의 소비를 필요로 하는데 자원을 채취하고 상품을 제조하여 유통, 소비하는 모든 과정이 환경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연을 지배하는 열역학의 법칙에 의하면 사람의 생존과정은 에너지와 자원의 일방적 감소, 환경질의 훼손을 초래하며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경제행위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경오염은 이를 줄일 수는 있어도 근원적으로 없게 할 수는 없다.

개개인의 경제활동이 모여서 사회 전체의 경제행위를 만들어 내지만 발전을 지향하는 개인이 모인 사회전체는 역시 발전지향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보다 양질의 많은 소비를 추구하는 현재의 경제발전 패러다임 하에서는 경제발전이 곧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면 할수록 자원감소와 환경훼손 역시 가속화된다. 경제발전과 환경오염은 불가피한 동반관계에 있으며 우리는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중에서 택일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보다 경제발전을 추구하려 하면 보다 많은 환경오염을 감수하여야 하며 환경보전에 치중하고자 하면 경제발전을 어느 정도 희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혹자는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사람들의 관심이 경제발전과 관련된다는 것으로 환경에 대한 욕구는 경제발전이 일정수준을 넘어서야 나타난다는 것이다. 초기 경제발전단계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경제적인 것, 즉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환경훼손이 일어나더라도 빈곤을 타파하기위한 개발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경제가 발전하여 생존적 욕구가 충족되고 어느 정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면 비로소 쾌적한 환

경에 대한 욕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결국 경제발전이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급적 측면에서 양질의 환경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며 동시에 경제발전이 환경개선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오염되지 않은 토양은 현대인이 즐겨 찾는 유기농의 필요요건이 되고 있으며 오염되지 않은 물과 해양은 양식과 어업, 기타 농업과 수산업의 품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생산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에 있어서도 청정한 환경은 종사자들의 건강과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상품의 품질 향상과 함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이것은 다른 서비스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관광과 같이 환경자체가 상품인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또 다른 측면에서 환경의 보전이나 복원은 필연적으로 자원과 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환경보전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의 규모는 경제발전과 함께 증가한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환경보전 능력은 경제력이 되며 경제발전이 없이는 환경보전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력이 앞선 선진국의 환경이 개도국이나 후진국보다 훨씬 더 잘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증명한다.

4. 갈등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의 추구

이처럼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은 갈등관계와 보완관계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경제발전을 추구하면 어쩔 수 없이 환경오염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경제발전이 오히려 환경보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성에 대하여 밝은 빛을 보여준다. 최소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경제발전을 포기하지는 못하더라도 발전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환경을 최소한으로 훼손시킬 수 있고 경제발전의 결과 우리의 환경을 보다 더 잘 보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속가능사회는 환경과 경제의 조화만으로는 달성이 어렵다. 그것은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합리적 목표 결정이 사회구성원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람마다 이해관계가 달라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문제를 둘러싼 사람 사이의 갈등은 환경보전에 소요되는 희생과 환경보전 편익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다. 환경보전은 경제발전에 대한 자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근본적이다. 경제발전 속도를 늦추어 자원소비와 환경오염을 줄이며 소득의 많은 부분을 환경보전에 투입한다면 환경보전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개인이 이러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구체적인 방법에 이르면 개개인의 이해를 조정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의 자제는 특정 산업에 대한 희생의 편중과 이로 인한 불평등한 고용감소 및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반면에 환경보전으로 이들이 향유하게 되는 편익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기 쉬우며 이들의 심각한 저항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섬유, 피혁 도금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이들 산업의 사양화를 가져오고 이 업체의 종사자들이 실직하게 하며 그로 인하여 이들이 입는 피해는 이들에게 분배되는 환경개선의 이득을 훨씬 초과하게 되어 심각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아무리 바람직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이 있다 하여도 실천이 어려워진다면 이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 아니다.

환경복원을 위한 비용의 분담도 개별 부담자의 환경에 대한 수요의 정도와 비례시키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는 실천이 매우 어렵다. 우리의 조세구조는 소득에 대한 누진제도를 근간으로 하지만 환경에 대한 욕구는 반드시 소득에 누진적으로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양질의 환경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지역평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더구나 아직도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영세층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그 많은 비용을 들여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외면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가진 자의 횡포로 인식될 수도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환경보전의 이득과 희생이 구성원간에 공정하게 분배되게 하는 노력과 근원적으로 환경이 사치로만 들리는 가난한 층을 없애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정의로운 분배체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환경보전을 반대하는 계층이 없어야만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전체의 노력이 가능하게 되며 환경보전의 편익과 희생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될 때 지속가능전략은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또 하나 환경보전 정책도 투입하는 노력이나 비용 대비 보전 효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효율성 추구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일지라도 환경보전이 또 다른 필수적인 경제적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일 진대 이에 소요되는 경제적 노력과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지속가능발전의 요건으로 환경보전, 경제적 평등과 함께,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를 그 요소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환경보전 문제를 떠나 인류사회 전체의 공영을 위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여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5. 기업책임의 변화와 New Governance 요구

이러한 지속가능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역할 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 변화는 기업에서 일어난다. 통신혁명과 운송수단의 혁신적 발달로 사람들의 생활권이 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활동영역이 범지구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국가 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정착에 따라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이 줄고 있을 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보편화로 일국의 재정, 금융정책이 그 효과를 잃고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사경제적 역할이 축소됨에 따

라 공공정책의 민영화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공공정책 실현을 위한 개도국의 재원 부족, 공적개발원조의 급격한 축소, 해외민간투자의 급증, 국제규범체계의 확대와 복잡화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업활동의 다국적화에 따라 이전에 정부에서 담당하던 역할의 상당 부분이 기업으로 이전되고 있다.

기업활동의 글로벌화와 정부역할의 상대적 축소는 기업활동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계속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은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새로운 역할의 요구는 기업책임에 있어서 New Governance로 표현되며 이는 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로 요약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대는 먼저 기업의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대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특히 다국적 기업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기업의 도산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활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요구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의 책임 확대는 기업활동 이외 분야에 대한 기업의 참여와 역할 확대에서 찾아진다. 현재의 기업환경은 새로운 기술개발과 글로벌화, 블록화, 다양화되어가는 시장으로 특징 지워지지만 새로운 IT기술로 무장한 현대의 다국적 기업들은 지구상의 모든 사건이나 정치 사회적 변화를 경영의 고려요소로 하여 경영전략을 추진하는 결과 국가 정부보다 더 지구상의 정치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크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EU의 등장과 사회주의적 전통의 강화로 유럽 사회의 미국과 기타 지역을 향한 사회 환경이슈의 강조현상이 나타나고 기업들이 이들 이슈를 비즈니스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기업의 고유 책임 외에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도 추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기업에 요구되는 책임은 주주에 대한 수익 창출의 전통적 교유 책임으로부터 상품 고객에 대한 제조물 책임(품질 및 서비스 향상)과 사회에 대한 고용 창출 책

임, 이에 파생하여 노동과 인권에 대한 국제적 표준 준수 책임,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리 감시 책임, 기업간 공급사슬(Supply Chain)을 통한 기업에 의한 기업 감사, 조립업체의 부품공급업체에 대한 환경성, 노동조건 평가, 감사, 모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 감사 등으로 무한정 확대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사회요구의 다양화에 병행하여 기업에 대한 범지구적 표준(Global standard)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제 기업은 이 Global Standard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영전략이 필요(New Governance)한 시기가 되었다.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새로운 요구가 날로 나타나고 있으며 요구체계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제 기업은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 연구와 내부 대응체계의 구축,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Contents 정비, 기업 간 공동대응, 국제협력체제에의 동참 등을 통한 경영목표의 수정이 필요하다. 바야흐로 기업은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환경보전과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 사회적 평등 보장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적 위치에 서게 된 것이며 종래의 이윤추구 목적을 확대하여 공공의 목적을 더 추구하여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언젠가 기업의 본래 개념은 퇴조하고 기업의 최고경영자(Meeting Business Agenda)가 정치적 경영자(Meeting Public Policy Agenda)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6. 맺으면서 : 동반과 협력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사회는 기업의 중심적 역할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지속가능사회가 기업 혼자서 역할 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부와 다른 국민 일반의 역할 분담과 참여가 더더욱 중요하다. 전통적인 정부역할은 퇴조하고 있지만 정부가 담당하여야 할 새로운 임무와 역할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은 환경, 인권, 복지와 관련되는 사항이 많으며 직접적인 환경 규제 이외에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국가적 기준과 표준을 제정하고 이의 시행을 담당할 표준기구를 설립

하여야 하며 다양한 평가기관간의 조율과 관리, 국가 표준화가 필요하다. 또 국가는 자원배분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하는 중심에서 있다.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개편과 경제체계의 정착을 위하여 산업활동에 대한 환경규제와 유인, 장려를 위한 각종 세제와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이외에 지속가능한 금융정책을 통하여 자본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에 집중되게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일반국민과 시민단체와 같은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 축소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NGO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지속가능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다. 이들의 늘어난 역할을 보면 소비자 단체 및 NGO의 기업 평가와 같은 것은 구속력은 없지만 인터넷을 통한 공개로 사실상 기업을 압박하고 있으며 Green Peace, CorpWatch, FoE, WWF, SA8000, AA1000 같은 단체는 기업활동을 사실상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종래 공공기관으로 일원화되어 있던 기업을 평가하는 규제와 감시 기구가 민간으로 이관되고 다양화되면서 기업 평가를 담당하는 NGO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늘어

나는 역할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서는 NGO도 지식과 전문성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업 역할에 대한 비판 일변도의 시각도 버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비판과 기업이 간과하기 쉬운 부문에 대한 모니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부와 기업, 기업과 소비자, 기업과 일반국민간의 가고 역할을 수행하는 보다 협조적인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도록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21세기를 맞는 우리 모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시대의 문턱에서 새로운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사회 형성을 위협하는 새로운 정치 사회적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인류사회를 지속가능사회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일반 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정착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새 가족

협회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협회는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보전관리업

- (주)맨에어코리아 · 이희창 ·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1874
- 그린웰E&B(주) · 이원규 ·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39-1 K&T 벤처빌리 651A
- (주)고어코리아 · 앤드류존와렌다 · 서울시 서대문구 중정로 37가 종근당 빌딩 12층

배출5종

- 진산금속(주) · 황철용 · 경남 사천시 축동리 탑리 193
- 한화중합화학(주) · 조창호 · 경남 진해시 장전동 530
- 모동기업사 · 강중희 · 경남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산6-1
- 상우산업 · 하인표 · 경남 진해시 남양동 3624
- (주)대흥공업사 · 박일환 · 울산시 북구 연암동 914-1
- 태경자원 · 이태환 · 울산시 남구 여천동 337-1
- (주)삼남 · 유영열 ·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산82
- 동남정밀(주) · 최정학 · 김해시 안동 539-27

배출5종

- 선영위탁(주) · 최동언 ·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화산리 322
- 대일산업 · 신지용 · 경남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707-1
- 덕성인더스트리(주) · 임병관 ·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87-19
- 일진산업 · 정재훈 · 경남 창원시 필용동 233
- 부광산업 · 정현봉 ·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705
- (주)선영기업 · 오정관 · 경남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2888
- 신우하이테크(주) · 정영민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60-1
- 동성산업 · 박주호 · 경남 미산시 진북면 추곡리 5042
- 한국석유공사 여수지사 · 이호재 · 전남 여수시 낙포동 157번지
- (유)세기개발 · 정동영 ·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 797
- 제형산업(주) · 박종태 ·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1636-2
- 엘트헬 코스메틱(주) · 고준군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280-22